

“경찰 고위간부·국회의원 보좌관에 현금 1억”

‘사건브로커’ 재판 핵심증인 증언
수사무마 청탁 위해 총 13억 전달
경무관급 경찰 등 술자리 합석도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 재판이 열린 5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탁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수사무마를 위해 경찰과 브로커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성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탁씨는 이날 광주지법 202호실에서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 주자장과 스포츠시설 내 카페, 초밥집 등에서 한 번에 5억원 씩 총 13억원을 성씨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했다”며 “FTB 코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으로 예상돼 수사 무마를 위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을 통해서 현금을 전달했다. 캐리이에 현금을 담아서 성씨의 차에 직접 주기도 했다”며 “성씨가 수사를 무마하려면 골프 회원권도 필요하고, 인사비용으로 1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 금액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2월 한 민속주점에서 성씨가 경무관급 경찰 고위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사건 관련 고위층 관계자와 술을 마시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니 현금 1억원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 승용차에 현금

1억원을 싣고 술집으로 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탁씨는 별도의 미술품 코인 사기 사건으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탁씨는 전국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코인 투자 사기를 벌였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인 탁모(44)씨로부터 수사를 무마·축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8억원을 받아 쟁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광주와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탁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성씨에게 거액을 안기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탁씨는 지난해 7월 광주경찰 반부패수사대에 입건된 뒤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선거를 호소하기 위해 성씨와의 ‘검은 거래’가 담긴 전화 녹취록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성씨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의 전·현직 경찰 간부 10여명이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기소됐다. 수사는 경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에서는 성씨에 1300만원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6급) 심모씨가 구속됐고 또 다른 검찰수사관(6급)이 지위해제됐다.

경찰은 서울경찰, 목포경찰을 시작으로 11월10일 광주경찰, 광주 북부경찰, 광산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10여명이 입건됐다.

성씨한테서 승진 청탁을 받은 김재규 전 전남경찰청장(퇴직)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목포지청 수사관 심씨

와 장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전남경찰청에서 퇴직한 이모씨 등 전 경감 3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경로당 전달 선물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금호중앙중학교 학생, 자생단체 회원들이 5일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경로당에 전달할 김장김치와 선물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돌려막기로 전세금 7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임차인 6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50대 전세사기범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광주 지역 주택 65채를 헐값에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저당 설정 주택 매입 가격과 전세 임대차 보증금 간 차액을 벌고자 무리하게 투자해왔다.

특히 지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다시 신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돌려 막기를 반복했다.

A씨는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도피할 때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계좌·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한 바 있다.

검찰은 A씨 구속 기소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송민섭 기자

신안 태도 인근해상서 중국어선 뒤집힌 채 발견

해경 “중국 관계기관 연락해 파악”

신안 해상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신안 태도 서쪽 38km 해상에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사고 해상 주위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방송 및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10시 58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중국 선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바다 위에 전복해 있었고 사고 해역 주변에는 어망과 로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해경은 선박에 타격 신호(선체를 두드려 반응을 청취)를 취하는 등 생존자를 확인하고, 수중수색을 통해 선체 서류와 장비작동 여부 등을 수집해 자세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 RCC(구조조정본부)와 중국어선 협회 등 관계 기관에 연락을 취해 관련 상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를 비롯한 알 120 여백에 함유된 알로에 효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첨가물
무색향료